

8/30/15

설교 제목: 파수꾼의 사명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에스겔 33:1-9

(겔 33:1)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33:2)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절관주** 겔 14:17

(겔 33:3)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절관주** 사 58:1, 렘 4:5, 호 8:1

(겔 33:4)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절관주** 잠 29:1, 렘 6:17, 약 1:23, 행 18:6, 행 20:26

(겔 33:5)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절관주** 행 2:37-41, 히 11:7

(겔 33:6)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의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겔 33:7)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겔 33:8)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겔 33:9)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절관주** 행 20:26

전시 상황에서 파수꾼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지난 3 주 동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북한의 전쟁 위협으로 피를 말리는 긴장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8 월 4 일 북한군이 DMZ 안에 있는 아군의 추진절책 통로에 매설해 놓은 목함 지뢰로 인해 대한민국 육군 제 1 보병사단 예하 수색대대 부사관 2 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단이었습니다. 국방부와 유엔군 사령부의 합동 진상조사에 의하면 북한이 DMZ 에 몰래 잠입하여 매설해 놓은 목함지뢰가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목함지뢰는 나무로 만든 것이라 자체적으로 신호를 방출하지도 않고 탐지기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 사태,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또 다시 남쪽에 대량 인명 피해를 내는 도발을 강행한다면 남한의 반발이 상당히 셀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피해가 크지 않지만 계속하여 위협을 주는 이런 도발의 방식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비열한 행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아군의 경계 실패입니다.

북한군이 목함 지뢰를 설치하기 위해서 DMZ 내의 군사 분계선을 넘어 오는 순간 발견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DMZ 내의 산림이 보통의 산보다 우거져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 군 당국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군의 파수꾼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약 3 주간 전쟁 위협 속에서 군사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극심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으시면서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유다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유다 역사상 가장 비참했던 시기, 즉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가 되어 살아야 했던 때 유다 포로들의 거류지였던 바벨론 그발 강가 텔아비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탄에 빠진 백성들을 향하여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BC 622 년에 태어났고 바벨론의 2 차 예루살렘 침략 때인 BC 597 년(BC 605 년 1 차 침략, BC 586 년 3 차 침략) 포로로 잡혀 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지 5 년째 되던 해인 BC 592 년에 여호와의 말씀과 권능이 그에게 임하면서부터 BC 570 년까지 약 22 년간 예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겔 1:1)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겔 1:2)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오 년 그 달 초닷새라

(겔 1:3) 갈대아 땅 그발 강 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리고 BC 560 년에 죽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의 22 년간의 예언 사역을 기록한 책입니다.

B.C. 586 년 예루살렘 함락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에는 주로 심판에 관한 예언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회복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전반부(32 장까지)는 유다와 주변 이방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고

후반부 (33~48 장)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예언되어 있습니다.

본문 33 장은 유다와 주변 이방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넘어가는 시작 부분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민족 파수꾼으로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을 주셨고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아니 새로이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책임과 사명을 부여하셨다기 보다는 다시 한번 파수꾼의 책임과 사명에 대해서 상기시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의 책임과 사명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 파수꾼은 깨어서 다가올 위험을 경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겔 33:2)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겔 33:3)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겔 33:4)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겔 33:5)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겔 33:6)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의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칼(하레브)'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전쟁을 가리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며 불의를 행함으로 진노하셔서 이방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여 전쟁을 일으킬 작정이십니다.

'파수꾼(초페)'은 주로 성벽 위에 배치되어 적군의 침입이나 움직임 감지하여 알리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파수꾼의 주요 역할은 망대나 성벽에서 망을 보거나 나팔을 불어 위험을 경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파수꾼은 늘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만일 파수꾼이 졸다가 적이 침략하는 것을 보지 못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못하면 큰 재앙이 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다가오는 위험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어떤 위험이 다가오는지를 살피 그것을 알려 공동체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에서는 파수꾼이 자신의 직무에 태만하여 적군의 동태에 대해 바로 알리지 않는 경우 사형에 처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죄지은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사명을 바르게 감당치 않아 죄진 백성이 돌이킬 기회를 잃고 죽을 경우 그 죽은 백성의 죄를 파수꾼인 에스겔에서 찾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파수꾼으로 세운 에스겔에게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멸망의 원인인 유다 백성들의 영적 부패에 대해 경고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하도록 파수꾼을 세우신 많은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파수꾼이었고,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과도기의 파수꾼이었습니다.

나단과 갓은 다윗 시대의 파수꾼이었고,

엘리아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와 그 이후의 대표적인 파수꾼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남 유다 웃시야 왕 때부터 5 대 왕에 걸쳐 60 년간 파수꾼의 사명을 수행하였고,

예레미야는 남유다 요시야 왕 때부터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역시 5 대 왕에 걸쳐 50 년간 파수꾼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20 년 이상 파수꾼의 사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시대마다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위임받은 목회자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위하여 세움을 받은 영적 파수꾼입니다.

목회자는 영적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기를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 듣기에 달콤한 축복과 위로의 말만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배척한다 해도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에게 영적으로 위기가 닥쳐온다면 분별하여 책망과 경고의 말씀까지도 단호하고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잠든 영혼을 말씀으로 깨우는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파수꾼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두 늘 깨어 자신을 살피고 가족과 이웃을 살피 다가오는 위험을 먼저 발견하고 경고의 나팔을 부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2. 파수꾼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겔 33:7)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파수꾼의 사명 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여 보십시오.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들어보십시오.

당장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어느 순간 그 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여러분은 비로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파수꾼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인들에게 죄를 책망하여 바로 설 수 있도록 경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겔 33:7)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을 바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의무가 있습니다.

죄 중에 빠진 사람들을 깨우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주요한 기능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교회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엄한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겔 33:8)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겔 33:9)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폴 니그렛이라는 루마니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목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목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1988 년 비밀경찰의 극심한 박해로 손과 왼쪽 발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비밀경찰은 집을 습격해 난장판을 만들고 아이들까지毆박했습니다.

그는 루마니아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절망감을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때 친구가 낡은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25 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가 처형당한 어느 사형수가 쓴 편지였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는 곧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마주할 날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전도자들, 주의 종들, 선교사들, 찬양대원들, 주님을 섬기는 모두를 하루 빨리 보고 싶습니다. 순교자들이 면류관을 쓰고 주님의 발 앞에 면류관을 내려놓는 것을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때 제가 천국의 행렬에 루마니아 죄수복을 입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당한 죄수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폴 니그렛 목사님은 그 순교자의 편지를 읽으면서 자기도 루마니아 죄수로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각오한 그는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않는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오늘날 방송 사역을 통해 루마니아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파수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파수꾼의 사명을 부여받은 공동체입니다.

파수꾼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은 늘 깨어서 다가올 위험을 경고하고 사람들의 죄를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돌이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성실하게 경고의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